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 국제인문학부/사회과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

### 문제 1

#### I. 문제

##### <문제 1>

제시문 [가]~[라]를 근거로 하여, [마]를 비판하라.

[가] 모든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물리적 사건들이란 두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두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물이 H<sub>2</sub>O 이듯이, 정신적인 사건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과정이라는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나] 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처음 방문한 한 사람이 수많은 대학건물, 도서관, 운동장, 박물관, 학과 및 행정 사무실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런데, 대학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대학의 구성원들이 어디에 사는지, 교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실험 등의 일을 하는지 밖 왔지만, 당신 대학의 구성원들이 머물고, 일하는 대학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에게 대학이란 당신이 본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과 동등한 어떤 감춰진 것, 즉 또 다른 대응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대학이란 그저 그가 이미 보았던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학건물, 연구실, 사무실, 학생, 교수 등을 보고 나서 이것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대학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방문자는 교회, 보들리언 도서관(the Bodleian Library), 애쉬몰리언 박물관(the Ashmolean Museum)과 동열에서 그 대학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순진한 가정에 따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즉 그는 대학을 그 구성 부분인 여러 기관들과 동일한 범주에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 길버트 라일, 『마음의 개념』

[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함께 예(禮, 의례, 의식)에 참여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인들을 자신과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해 주었는지가 밝혀진다면, 그 행위는 인(仁, 인자함)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행위 양식이 어쩔 수 없이 영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에서 나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타내지 못한 화음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행위가 시도했던 방향, 목표, 그 행위 안에 담겨진 배려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맥락에서 그 행위를 봄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완전히 내면적인 정신 영역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다.

- 허버트 핑거렛, 『공자의 철학』

[라] 심적 활동은 뇌의 과정처럼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활동, 특히 관련 환경 구조를 조작·변형·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 어쨌든 이런 견해의 선두 주자인 러시아 심리학자 레브 비고츠키(Lev Vygotsky)는 동료 안톤 루리아(Anton Luria)와 함께 기억과 그밖의 심적 활동의 과정이 외부 정보 저장 장치의 발전과 함께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원시 문화의 탁월한 자연적 기억력은 인류가 기억 저장을 위해 개발한 문자 언어에 의존하면서 점차 약해졌다.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 문자 언어의 발달은 매우 최근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기억력과 그밖의 심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했다. 간단히 말해 개는 늑대와 매우 다른 환경에서 자라 왔다. 따라서 개의 심리적 과정과 능력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발달되어 왔다. 특히 개는 사람에게 의지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밖에 개는 인간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 및 기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고안했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매우 유용한 정보 처리 장치이다. 인간은 개의 ‘연장된 마음’(the extended mind)의 부분이다.

- 마크 롤랜즈, 『철학자와 늑대』

[마] 인간의 육체는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간 속의 모든 물체를 지배하는 기계적 법칙을 따른다. 육체의 제반과정과 상태에 대해 외부의 관찰자들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육체활동은 동물이나 파충류의 활동, 심지어는 식물이나 광물 또는 별의 제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이 된다. 이에 반해 정신은 공간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며, 그 활동이 기계적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다. 한 정신의 제반작용을 외부의 관찰자가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정신의 활동이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이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과정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뿐이다. 따라서 한 인간은 두 개의 병행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육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고, 또 하나는 정신에서 일어난 일들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육체의 세계는 공적이고, 정신의 세계는 사적이다. 전자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리적 세계의 사건이고, 후자에서 일어난 것은 정신적 세계의 사건이다.

- 길버트 라일, 『마음의 개념』

##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문제1은 마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중에서 심신이원론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러 제시문들을 읽고, 비판의 요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과 몸, 즉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두 개의 철학적 관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이어지는 제시문을 접하면서 해당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 2.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마]를 심신이원론이라는 관점으로써 제대로 제시하였는가?

둘째, 제시문 [가] ~ [라]를 위의 심신이원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3.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1은 고등학교(2012.12)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국어Ⅱ 작문 영역에서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에 대한 이해와 고등학교(2012.12)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에서 정보 전달의 원리를 확인하는 논제이다.

## 문제 2

### I. 문제

#### <문제 2>

제시문 [바]의 주장의 근거로서 [바] 도표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가]의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나]~[바]를 논거로 활용하여 논술하라.

[가] “엄마, 그건 전적으로 제 선택의 문제라고요.”

“뭐가 네 선택이야? 그게 왜 너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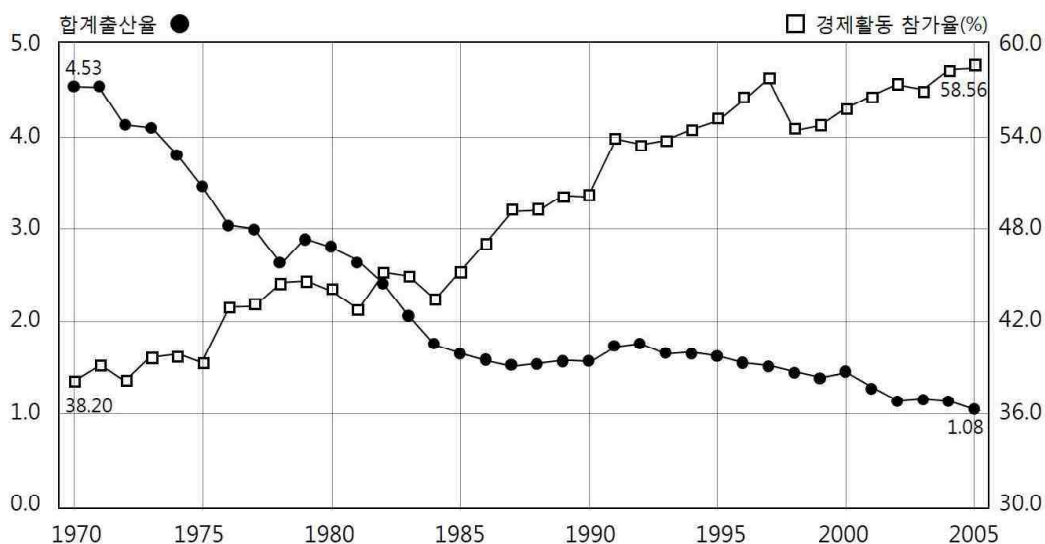
“전 해야 할 일도 많구요, 제 주변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많대구요.”

“애, 요즘 젊은이들이 너처럼 생각해서 이 예미는 걱정이 많다.”

모처럼 친정 나들이를 했다가 엄마와 말다툼만 하고 돌아왔다. 나도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남편, 5살짜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자식을 하나 더 낳으라고 친정 부모님이 난리다. 나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한다. 딸 민서가 커 가며 재롱을 부릴 때면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 민서 낳고 다시 복직되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들었다. 아이 수유하고 우는 아이 떼어 놓고 출근하던 것, 아이가 열이 올라 회의 중에 병원으로 달려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다 야근과 회식이 있을 때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눈치 봤던 일들! 휴, 이제 적응할 만한데 다시 아이를 낳으라니……. 사실 엄마한테 출산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화를 내고 돌아왔지만 그게 아닌 건 나도 안다.

-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나] 1970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나라 20~39세 가임 여성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음과 같다.



합계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20~39세)

-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 정책』

[다] 출산 이외에도 노동 공급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출산 정책은 그 부작용으로 여성 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가사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을 제고 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우선,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평균교육년수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여성 노동 참가율의 지속적 상승과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 …중략… 또한 여성의 교육년수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에 의한 출산율의 저하로 귀결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경제학과 신가계경제학의 자녀 양육에 관한 양과 질의 상충 관계를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의 평균교육년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을 통해 출산율 저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 정책』

[라]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알려주는 척도 중 하나로 각종 여성 신조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알파걸’(α-girl)인데, 알파걸이란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인간 관계, 리더십 등 전 영역에서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트 소녀를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면, 여성 고급 공무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파걸’ 신드롬의 양상: 엘리트 관료 집단의 핵심인 재정경제부에 지난해와 올해 배치된 신입 사무관 10명과 12명 중에 여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합격자 비중보다도 연수원을 마치고 난 다음 배치 과정에서도 선호 부처에서 여성이 남성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 더 시사적이다. 2005년 교육 직렬은 모집 정원 10명을 모두 여성이 채웠기 때문에 양성 평등을 위한 채용 목표제에 따라 남성 3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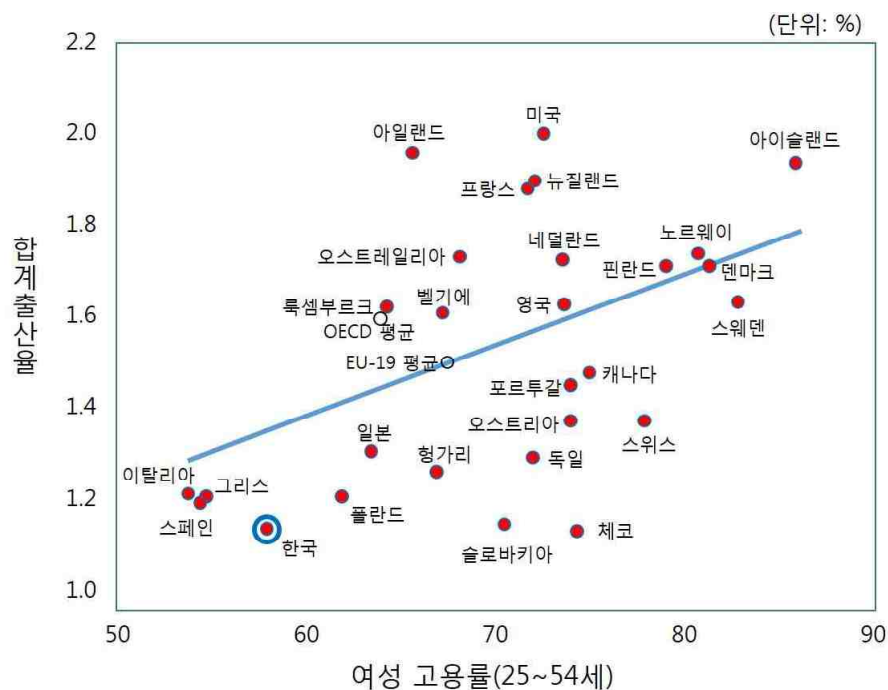
…중략… 그러나 아직은 성 불평등의 현실이 바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10대와 20대 여성에게 괄목할 만한 성 불평등의 개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회 구조적으로 성 평등의 실현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 □□등학교 국어(하)□□교과서

[마]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오는 2016년에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그동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는 끝나고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시작된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다. 인구 오너스 시대가 되면 최근 10여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두 번의 금융 위기로 인한 양극화와 세대 갈등이라는 두 개의 퍼즐을 더욱 풀기 어렵게 될 것이다.

- 『○○경제신문』

[바] 합계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관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서 대체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 주: 멕시코와 터키는 제외(멕시코: 합계출산율 2.40, 여성 고용률 45.8%; 터키: 합계출산율 2.46, 여성 고용률 28.4%).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1.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 II.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1. 출제의도

문제2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도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 2. 채점기준

첫째, 제시문 [바]의 주장과 그 근거로 제시된 도표 해석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둘째,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셋째,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반비례 관계이지만, 우리 사회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문